말레이女, "불자로 살겠다" 이슬람에 도전장

무슬림 부계혈통주의 거부… 고등법원에 항소

생부 무슬림이란 이유로
이슬람 율법 적용 받아
종교·혼인 자유 등 박탈
"생모 따라 평생 불자로 살아"
권리 찾기 위해 법정 소송



생부의 종교가 이슬람이란 이유로 무슬림이길 강요받은 여성이 법정 소송을 통해 불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사진은 그의 변호사 애쉬튼 파이바(맨 오른쪽).
사진출처=Free Malaysia Today

얼굴도 모르는 생부의 종교가 이슬람이란 이유로 무슬림이길 강요받은 여성이 불자로 살 권리를 찾아 나섰다.

말레이시아 언론 'malaymail online'은 10월 11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에 사는 로즐리자 이브라힘(Rosliza Ibrahim · 35)은 평생 불자로 살아왔지만 생부가 무슬림이란 이유로 자신에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려는 무슬림공동체에 반대, 최고법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즐리자 이브라힘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현재 민주적 관습법과 이슬람 실체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부당한 경우에 처했다"며 "사생아로 자라 생부는 나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다. 키워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불자로 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즐리자의 본거지인 셀랑고르주 당국은 그를 무슬림으로 등록하고 샤리아법(Shariah law; 이슬람 성법)을 적용받게 조치했다. 로즐리자가 사생아지만 무슬림 생부를 뒀단 것이 유일한 근거였다.

이에 로즐리자는 지난 3월 셀랑고르주 고등법원과 연방직할구종교당국에 생부와 생모는 정식으로 결혼한 적도 없으며, 생모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적도 없단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문서를 제출했다. 생모도 생부와 결혼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생부의 거처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부부가 말레이시아 내 다른 도시 혹은 외국서 무슬림 결혼식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로즐리자의 변호사 애쉬튼 파이바(Aston Paiva)는 'malaymail online'과 인터뷰서 "재판 내내 판사들은 증거제출 요구는 물론 증언 채택도 하지 않았다. 당국은 불자 생모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에 이슬람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러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애쉬튼 변호사에 따르면 이슬람 샤리아법선 로즐리자가 헌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합법적 재산 양도권이 무시될 뿐 아니라, 혼인의 자유도 박탈된다. 태생적으로 무슬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원에도 가지 못하는 처지다.

애쉬튼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들만으로도 로즐리자가 이슬람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에게 무슬림으로 살라는 것은 이슬람 율법원의 억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로즐리자는 항소심을 통해 고등법원에 제출한 증거 채택 및 신분증서서 종교를 불교로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애쉬튼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법원이 이번 사건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슬람의 대(對)불자 억지력에 동조한단 뜻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으로 보호받는 민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말레이시아선 일방적·강제적 이슬람 개종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툭 세리 하밀 키르 바하롬 이슬람위원회 대표는 지난 5월 "종교가 혈통계승되는 것은 내각 관료들이 합법성을 인정하는 만큼 연방헌법에 따른 합법적 조항"이라 해명한 바 있다.

한편 2010년 말레이시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슬람 신자가 61.3%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두 번째로 불교도가 19.3%를 기록했다.

박아름 기자 · 이승희 수습기자

미모의 비구니, '아이돌' 되다

日 나카무라 유카 스님, 음악 포교로 '인기'

미모의 비구니 아이돌 스님이 세간의 화제다. 나라현(奈良縣)에 있는 어느 작은 사찰의 부주지를 맡고 있는 나카무라 유카(中村祐華) 비구니 스님이 그 주인공. 스님이라는 신분에 어울리게 아이돌 명도 이른바 '아이돌 보살'이라고 한다.

'재팬 매거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나카무라 스님은 불교계에선 나름 인기 있는 유명인사라고 한다. 이미 9년 전부터 라이브 하우스 등서 찬불가를 부르며 아이돌 스님으로서 포교활동에 전념해 왔고 열성팬들도 존재한다.

절에서 태어난 스님은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절을 계승하기 위해 승려가 될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아이돌이 되고 싶어 노래연습 학원까지 다니며 자신의 끼를 갈고닦는데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도 불교학과에 진학해 전문지식을 쌓았다. 그러던 중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고민 끝에 스님은 25세 때 '아이돌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교포교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의 노래 연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젊은이들에게 불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나카무라 스님은 "절에서 가만히 젊은이들을 기다리기보다 제가 그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라며 라이브 하우스에서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이야기 했다.



일본의 불교잡지 〈프리스타일한 승려들(フリースタイルな僧侶たち)〉 43호에 실린 나카무라 유카 스님의 모습.

스님의 노래엔 불교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의 사서계(四誓偈)를 음악에 맞춰 독송하는가 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노래를 스님이 직접 작사하기도 한다. 스님은 이미 '보살 Revolution'이라는 타이틀의 1집 앨범과 올해 6월 2집 앨범 '보살 Calling'도 발매했다.

스님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보러 온 관객과 팬들에게 불교에 대해 설명해주고 서로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스님의 공연 자체가 하나의 큰 법회인 것이다.

주성원 객원기자

인도, 대규모 불교 개종 행사 진행

달리트 등 200여명 개종
"신분증, 서약서만 있으면 OK"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0월 11일(현지시간) 인도 아흐메다바드시서 불가촉천민인 달리트를 비롯해 다른 카스트 신분제도에 있는 사람들도 불교에 귀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인디안익스프레스

인도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비쟈다샤미(Vijayadashami)'를 기념하는 날 다수의 힌두교 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도 언론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10월 11일(현지시간) 인도 아흐메다바드시에서 불교로 많이 개종하는 인도 불가촉천민인 달리트를 비롯해 다른 카스트 신분제도에 있는 사람 등 200여 명이 불교에 귀의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구자라트 불교아카데미'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다니림다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불교 개종행사를 열 것이며, 프로그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행사는 지난해 두세라 지역서도 열렸다. 불교로 개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분증과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데는 어떤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무슬림과 기독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로 개종 시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것에 비해 불교는 단순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바라트 바우다 마하사다의 책임자인 PG 요티카르는 "간디나가르 지역의 암베드카르홀서 대규모 불교 개종 행사를 열 것"이라며 "메사나, 바나스칸사, 사바르칸사, 아흐메다바드 등 지역민들이 불교 개종을 기대하며, 다른 지역서도 25명이 불교로 개종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6일 암베드카르 사망일에 개종을 돕기 위한 대규모 모금 행사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부처님 나라이자 불교의 발상지이다. 따라서 지금도 불교가 인도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인도의 불교인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인도서 완전히 잊혔던 종교인 불교가 다시 주목받게 되고 거의 찾아볼 수 없던 불자의 수가 그나마 인구전체의 1%에 가깝게 된 데에는 1956년 불가촉천민들의 집단개종행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56년 10월 14일과 15일, 인도 나그푸르의 딕샤 부미서 50만 명이 일시에 불교로 개종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일찍이 세계에 유래가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개종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불교 집단 개종식을 주도한 인물은 암베드카르 박사다. 이는 인도에서 고적으로만 남아있던 불교가 살아있는 종교로 다시 부활하는 계기이자 '신불교'로 표현되는 현대인도불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집단 개종을 이끌어낸 암베드카르 박사는 현대 인도에서의 불교부흥의 선구자다.

이보형 객원기자

"卍 나치 문양 아냐… 심각한 오용"

호주 탑모델 콜린, '만(卍)자 다시보기 운동' 주창

호주의 탑모델 콜린 매튜라 제프리가 '만(卍)'자를 나치 문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卍자 다시보기 운동'을 주창하고 나서 화제다.

인도계 호주인 모델 콜린은 10월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Twitter) 계정에 "난 만(卍)자 문양을 보면서 나치의 악독함이 훔친 우리 선조의 아름다운 문화를 떠올린다. 이제 만자 다시보기 운동을 펼칠 때"란 글을 게시했다.

콜린은 뉴질랜드에 사는 그의 친구들이 만자 문양을 '역겹다'고 표현한 데 발끈해 이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콜린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보단 논쟁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린은 부처님의 성덕(聖德)과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만(卍)'자를 나치가 이용한 점에 대해 "심각한 문화오용의 예"라며 "파시스트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콜린은 앞서 10월 11일 '헤럴드'와 인터뷰서도 만자 역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콜린 매튜라 제프리. 사진출처=stuff

콜린은 "스와스티카(卍) 문양은 아리안 전통에 속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선한 존재'란 뜻으로, 인도인 중에는 스와스티카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